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없네

3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후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1 내가 예수 믿고서 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2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헤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3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후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 담당

11/12(화)	11/13(수)	11/14(목)	11/15(금)	11/16(토)	11/18(월)
김영민2 안수집사	이창수1 안수집사	심재윤1 안수집사	맹정윤 안수집사	나영진 안수집사	김민수2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지영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찬 송 ..... 445장 ..... 다 함 께  
기 도 ..... 나영진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23장 38-43절 ..... 인 도 자  
찬 양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새벽찬양대  
설 교 .. 『현실의 필요가 아닌 영의 필요를 채우라!』 .. 이지영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함 께  
찬 송 ..... 421장 ..... 다 함 께  
축 도 .....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누가복음 23장 38-43절 >

38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9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4년 11월 16일(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세밀히 지켜주시고, 은혜의 새날 거룩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와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음성을 선명히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필요, 현실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연약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의 것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섬세한 손길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새문안교회를 복음의 능력과 사랑을 크게 증거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문안교회가 매순간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가 이 나라에 올바르게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과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을 불드셔서 그들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